

社會教育科 教育課程의 지향과 과제

曹 永 達

(서울大 社會教育科)

1. 社會教育 現象과 사회교육

한국사회의 변혁과정과 사범교육의 변화과정에서 오늘의 社會教育科는 발전을 위한 일종의 過渡期를 맞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회교육과의 구성원들이나 관련 연구자들은 지금까지와 같은 존재양식의 사회교육과에 대하여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순수하게 사회교육만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리면 사회교육과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사회교육 현상이 무엇인가와 무관하지 않다. 혼히 社會教育 現象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

사회교육 현상은 기본적으로 教育現象이다. 교육은 인간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바로의 의도적인 변화를 추구하므로 사회교육 현상에도 반드시 사회교육이 추구하는 價値 및 바람직한 人間像 설정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사회교육에서 이야기되는 ‘바람직한 사회적 인간’ 또는 ‘훌륭한

민주시민’이라는 교육목표와 깊이 관련된다.

또한 사회교육 현상에서는 社會生活과 관련된 내용이 교육을 위한 소재로서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는 사회교육 현상을 한 부분으로 포함하는 교육현상과 다른 점이며, 수학이나 과학 등의 교과교육 현상과도 다른 점이다. 즉, 사회교육 현상에는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이해나 설명 및 사회활동 양식과 관계되는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든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교육 현상에서 우리는 사회생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相互作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회교육 현상에는 반드시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한눈에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TV를 통한 교육에서처럼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직접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면 이러한 과정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성취 목표를 향한 노력이기도 하다.

여기서 물론 이러한 사회교육 현상의 주위에는 그것의 발생과 관련된 環境이 둘러쳐져 있음

1) 조영달, 『성인용 민주시민교육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2; 조영달, “사회교육이란 무엇인가: 사회교육 연구방향의 탐색”,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세미나 발표자료(근간 예정), 1992.

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환경은 사회교육 현상의 발생형태나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특성 역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논의의 편리를 위해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교육 현상과 관련하여 사범대학의 사회교육과는 이 현상을 연구하고 이해함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社會教育이라는 교육의 한 영역을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교육자의 양성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다. 여기서 學部의 교육과정은 주로 후자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 반면, 大學院의 교육과정은 주로 전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로서 사람들은 사회교육과 졸업생은 바람직한 사회생활과 관련된 피교육자에 대한 관점과 태도, 교수 기능(skills)과 교육내용 지식이 다른 학과의 졸업생보다 더욱 꽉 넓고 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의 사회교육과는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指向點과 課題를 지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교육과정(개설 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에 한정 함)에 초점을 맞추어 답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사회교육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논의해 보고, 사회교육과 현황을 분석한 다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과제가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우리는 어떠한 教育課程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하나의 시론적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교육과의 環境과

사회교육 概念의 변화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발전과정은 사범교육의 存在構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교사 수요의 격감과 교원 후보생의 적체현상 및 입학생 수의 동결, 국립사대생들에 대한 자동발령 체계

의 변화, 전교조 활동 등에 의한 교원후보자의 자격요건 강화 등이 그 실례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教員任用試驗은 사범대학의 기능과 제도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즉, 교사로 임용되는 일정한 자격과 연계시켜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의 양성이라는 目的大學의 성격이 크게 강조되던 기존의 국립 사범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더욱 많은 고려사항을 갖게 되었으며, 사립 사범대학은 취업 기회의 확대와 함께 올바른 교사의 양성이라는 책임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것은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개선과 노력을 요청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상황 변화는 사회교육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요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세로이 요청된 ‘학교밖 市民教育’에 대한 수요와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교육대상 범위에 대한 개념의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成人教育 관련자들은 우리나라 성인교육이 오락이나 건강 등 여가선용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적 성인생활인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생활은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교육·연구기관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교 사회교육’ 전문가들은 학교 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교수·학습방식을 달리해서 학교 밖의 一般市民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일반시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나 교육의 목표 및 기본내용은 학교교육의 그것과 같은 것이며, 단지 교육내용의 폭과 깊이 및 교육방법은 교육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또한 앞 절에서 언급한 바의 사회교육 현상이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반시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²⁾

2) 손봉호, “사회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사회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뉴스레터』, 1990.

이러한 교육개념의 확대와 함께 최근 들어 등장한 現場教育에 대한 일종의 패러다임 변화에 우리는 크게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사교육은 일반 교육학의 내용과 순수학문의 내용이 근간이 되어 왔다. 이는 양자를 모두 잘 습득하면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법대학 각 과의 교과목들 역시 일반 교육학이 제공하는 교직과목과 순수학문 영역의 각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최근 들어 커다란 변화 과정에 있다. 즉, 현장의 각 교과를 그 나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대두되면서 教育內容과 教育方法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종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순수학문 내용 그 자체가 교과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의 전부가 아닐 수 있으며, 일반 교육학에 의한 교직과목만으로는 현장의 교수-학습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학습자의 특성에 기반하여, 학습 주제에 따라 그 특유의 교수-학습 유형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

요컨대 앞에서 언급했던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이 사법교육 구조변화에 준 영향이나 새로운 교육수요의 등장 및 교과교육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확산 등은 지금까지 사법대학의 사회교육과가 지녔던 교육과정을 새롭게 하는 방향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教育課程의 현황과 과제

1) 特性과 現況

인간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시민교육 교사의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학과는 대체로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및 국민윤리교육과 등이다. 이 중에서 社會教育과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

우선 1970년대 이후 국민적 정체성이 강조되면서 사회교육의 중요 분야였던 도덕과 윤리교육의 영역이 국민윤리교육과로 어느 정도 이전

하였다라는 사실이다. 이는 가치와 사실 문제의 분리 등으로 인해 사회교육과 교육과정 구성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하나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배경이 되는 타학문 분야가 매우 폭넓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리교육과가 지리학이나 지질학 등의 영역을 교과교육 내용의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회교육과는 정치학·경제학·사회학·문화인류학·심리학·법학·신문방송학 등의 사회과학 전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학과와 비슷한 학점으로는 교과내용의 습득에 키다란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사회현상의 표현매체로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意思表現 역시 언어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교육은 읽기·쓰기·말하기의 언어교육과도 크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사회교육과의 교육과정과 과목 개설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의 하나라 하겠으며, 協同的 教育課程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이처럼 사회교육과는 교육과정 구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유의점들을 지닌다. 그러면 현재의 사회교육과는 대체로 어떠한 교육과정 구성을 지니고 있는가? 현재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사회교육과는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및 '사회생활과' 등의 이름으로 약 15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대체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은 다음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 일반교양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 일반적 교양과목과 본인의 선택에 의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공과목 :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회과학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정치과정, 화폐금융론, 사회사상사 등의 과목들이 이에 해당한다.

· 교직관련과목 : 주로 일반 교육학의 중요 과목들과 사회파교육론, 교재 및 교수법의 사회과 교육 일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3) Cho, Youngdal, *Interaction patterns in Korean economic education classroom*, Philadelphia, Urban ethnography center, U.S.A., 1990.

2) 指向과 課題

이상에서 언급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우리는 그 속에 내재해 있는 假定이나 생각들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선 이러한 교육과정은 일반 사회과학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교육학 일반의 지식을 같이 갖추게 되면 교육현장에서 잘 가르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즉, 사회과 교사교육의 과목은 사회과학 지식과목과 일반 교육학 중심의 교직과목(교과중심 사회교육 2개 과목 정도 포함)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방식은 사회과교육을 문화적 유산이나 지식의 단순한 전달로 이해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⁴⁾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과 교사교육을 위한 사교유형이나 실제 교육과정은 많은 批判을 받고 있다. 우선 사회과 교사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사회과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음과 좋은 사회수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⁵⁾ 이러한 연구들은 오히려 훌륭한 사회과 교사를 위해서는 학생의 인지수준 판단능력, 학습 관심 유인능력, 개별교재의 구성능력 등이 더욱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많은 정도의 사회과학 지식습득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사회과학의 단편적 지식전수로 구성되는 과목이어서는 곤란하며, 사회과 교사를 위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오늘날의 많은 사회교육과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이야기되고 있다.⁶⁾ 그러나 이러한 再構成은 기본적인 사회과학 과목의 이수로 더욱 쉽게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교직과목으로서의 일반 교육학에 대하여도 같은 유형의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요컨대 일반 교육학의 교수-학습에 관한 여러 관점들이 그대로 사회교육에 사용될 수 없으며, 그것의 응용과 연구를 교사 자신에게 맡

긴다는 것은 대단히 不合理하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현장의 많은 사회과 교사들은 일반 교육학적 지식이 사회교육의 교수-학습 개선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⁷⁾

이러한 관점들을 앞 장에서 언급한 바, 각 주제에 따른 특유의 교수-학습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⁸⁾과 연관시켜 본다면, 오늘의 사회과 교사교육 교육과정은 사회과 목표에 맞는 교육내용에 관한 과목 개설과 사회과 특유의 성격을 반영한 교직과목 구성의 과제를 지닌다. 또한 교수-학습의 주체는 결국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사회적 인지구조나 여건 및 사회화 과정과 관련된 과목 개설이 필요함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대상의 概念을 학교 밖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시킨다면, 일반시민을 위한 사회교육 교육과정 역시 세로이 개발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하겠다. 이러한 일반성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은 우리 사회의 요청과 사회적 교육공급 여건에서 볼 때 사회교육과가 가장 적합한 곳일 수 있으며, 사회교육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도 국가사회적으로 매우 유용한 것이다.⁹⁾

4. 새로운 교육과정 構成에의 示唆

이상 언급한 바 여러 가지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과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의 한 두 가지 原則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현재의 사회교육과 교육과정은 성인에 대한 교육영역을 포함하여 社會敎育 그 자체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교육과의 과목 설정을 위한 각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여기서 이 구성은 이상적으로 價値와 事實이 구분되어 있

- 4) Banks J. & Parker W., "Social studies teacher education", *Handbook of teacher education*, 1987.
- 5) Cogan J. & Miner L., "Social supervisors' rating on NCSS guide line", *TRES*, 5, 1977 ; Grannis J., "The social studies teachers and teacher education", *Social education*, 34, 1970 ; Sowders R., "Importance of civics objectives in the field", Dissertation paper, Univ. of Maryland, 1982.
- 6) Nelson J., "The new criticism and social education", *Social education*, 49, 1985 ; Holmes G., *Tomorrow's teachers*, East-Lansing, MI: Auther, 1986.
- 7) 조영달 외, 『한국社会의 변혁과 학교 시민교육의 개선』, 1992년도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8) Cho, *op. cit.*
- 9) 손봉호, "전개 논문".

을 수 없음을 가정·기초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적 내용을 습득하고 이를 사회 교육에 맞게 재구성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회 교육과 교육과정의 이수 학점 수는 크게 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교육과 학생의 교육 연 한도 기준 4년에서 6년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교육과정도 늘어난 수학 연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과목의 명칭과 구성도 단 순한 일반 교육학의 그것이나 순수 사회과학적인 것에서 벗어나 사회교육의 特殊性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에 제시한 여러 영역 가운데 經濟教育 영역의 예시적 교과목 시안을 한번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아래 과목과 함께 현상 연구의 방법론이 크게 강조될 것이다.

〈經濟教育 영역 가능과목에 대한 試案〉

- 경제 교육 목표론
- 경제사회화론(경제개념 발달론 및 성인경제사회화 포함)
- 경제교육의 기초
- 사회생활과 경제(1), (2)
- 현대 국제경제의 형성과 협력
- 경제체제와 경제질서(경제윤리 포함)
- 사회사상과 경제현상의 이해
- 경제문제연습
- 경제 교육 교수-학습론
- 경제 교육 교재론
- 경제 교육 평가론
- 경제 교육연습

이상에서 논의한 사회교육과의 교육과정 시안은 어느 정도 현실을 등한시한 이상적인 것일 수 있다. 이를 들어 이러한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수학 연한이 늘어나야 하며, 이를 교수할 수 있는 대학의 교수인력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과정 시행을 위해서는 각 영역에 2명 이상의 교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두 세 가지의 시행을 위한 전제 조건은 금명간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고려점과 시안적인 개설과목 모형이 사범대학과 사회교육과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